

# “고흥해창만 수상 태양광 재개해 달라”

### 일부 주민 반대에 5년 허송세월 포두 태양광협동조합 등 “근거없는 민원, 소송명분 떨어져”

한국 최초 주민참여형으로 시작한 고흥해창만 간척지 담수호 수상 태양광 사업이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지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피해를 호소하며 공사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고흥신에너지(주)는 지난 2017년 10월 고흥해창만 간척지 담수호 수상 태양광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18년 3월 고흥군의회 투자 유치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

지난 민선 7기, 포두면 이장단 및 대학위원회는 주민찬반여론조사를 실시했고 1783가구 중 찬성 87.3% 반대 12.7%의 결과를 토대로 고흥군은 사업제안서 전국 공모 공고 후 고흥신에너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고흥신에너지(주)는 87만 7464㎡에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95MW 규모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원회가 애초 고흥군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불법이라고 허가 취소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또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1년간 모니터링 후 이상이 없을 때 2단계 공사가 가능한데, 모니터링 중 물고기 집단폐사해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고흥신에너지(주) 관계자는 “승어 폐족을 원인은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반대대



고흥 해창만 일대에 추진중인 수상태양광시설.

책위가 내놓은 강원대 수질검사 수치로 본다면 해창만 물고기는 하나도 살아날 수가 없다”면서 “강원대에 의뢰한 검사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회사는 전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담수호 물로만 가지고 모듈을 세척했다. 군청 등 4개 기관이 검사했으나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 농민들에 따르면 매년 가뭄이면 물고기가 폐사한다고 들었다. 근거가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공사지연으로 회사가 지금까지 27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발생민원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판사 박희두)는 포두면 박모 씨 등 13명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발전사인 고흥신

에너지(주)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고흥신에너지(주)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위한 건설기계의 출입을 포함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시행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흥신에너지(주)와 포두 태양광협동조합은 “근거 없는 민원으로 고흥군의 공사중지로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공사 중지 조치를 즉각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현재로는 회사와 민원인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기자 노트

## 박홍률 시장의 희망찬 돈을벌을 기대하며



장봉선 서부취재본부 차장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박홍률 호가 어느덧 한달을 맞았다.

선거 당시 지역 언론은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으나 개표 결과 박홍률 시장은 민주당 텃밭인 목포에서 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다.

민주당 후보가 패한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당원 명부 유출과 함께 편파적인 경선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경선과정에서 박 시장의 철 지난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목포시민들이 공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한 민주당에 대해 호된 질책과 함께 무소속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민주당에 뼈를 깎는 쇠신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 시장에게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목포시의회와의 협치가 필요하다. 이번 12대 목포시의회는 11대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외면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부 견제에 충실할 것으로 보여 박 시장의 협치와 소통 능력

이 시대에 섰다.

삼학도 특급호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임 시장때 추진해온 특급 호텔 사업이 시민 열세를 남비하고 친수공간을 없앴다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

여느 도시나 그렇듯 구도심 활성화 방안 또한 난제다. 목포경찰서 부근 옛 ‘연복’은 지방이 허물어지고 폐가가 속출해 ‘고양이 집’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빈집들은 쓰레기 투기장이 된 지 오래고 심한 악취로 목포의 이미지에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특히 옛 청호시장은 목포 최대의 수산물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 흔한 좌판 하나 없어 생선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목포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폭염까지 더해져 시민들은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각 출범한 박홍률호가 난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행정으로 아침 해가 떠오를 때의 ‘돋을발’처럼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안겨주길 기대한다.

/jbs@kwangju.co.kr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 식품 등 6개 기업과 계약

### 울 분양률 60% 달성

장흥군은 올해 식품, 화장품 등 제조기업 6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해 분양률 60%를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2022년에만 약 8만4000㎡를 분양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분양률 7%를 끌어올린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장흥군이 산단 분양을 위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면서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낸 결과다.

효과적인 기존 입주기업의 관리를 통해 추가 증설을 유도한 것도 분양률 향상에 힘을 보탰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현재 76개 기업이 들어서며 733.942㎡가 분양됐다.

이 가운데 운영중인 기업은 39개이며, 착공 및 준비중인 기업은 37개 기업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성과는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임기 내 분양 목표를 달성하여 인구증가와 일자리창출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 순천시, 노인맞춤 AI 반려로봇 돌봄서비스

순천시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반려로봇 입양식(사진)을 진행했으며 1일부터 12월까지 노인-장애인 등의 일상 케어를 위한 ‘말동무반려로봇 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인공지능 비대면 반려로봇(어르신 말동무 인형)은 노인의 우울증, 치매 등 질병과 고독사,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특히 순천 대표 철새인 흑두루미를 상징하는 루미 캐릭터 인형으로 더 친근감 있게 제작됐다.

기상·취침·약복용 등 개인별 맞춤형 알람을 통한 일정관리, 로봇이 먼저 대화를 시도해 말동무 역할을 하는 정서관리, ‘우울해’ 등 위험단어를 사용할 경우 생활지원사 등 관리자에게 알리는 안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100명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해남군, 화재예방 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해남군이 전기화재 등 각종 화재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단체와의 화재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무더위가 극심해지면서 해남군에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이상 더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누전·과부하 등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축사화재 등도 잇따랐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해남 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부지사·전기공사경영자해남군협의회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유관 기관·단체들은 화재예방 협업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화재취약시설 전기안



전점점, 화재예방 군민 안전교육 지원, 재난취약 계층 전기시설 수리수선, 화재예방 합동 홍보 캠페인 추진 등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강진군, 농가 택배비 지원 단가 인상

강진군은 물가 상승과 택배비 인상에 따른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택배비 지원예산 2억여 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4억여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가에게 지원되는 택배비 지원단가를 기존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했고, 농가별 지원상한금액도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마케팅 대학을 수료한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택배비 지원 상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 산업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 및 현지 확인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직거래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에 참여한 농어업인들의 철저한 품질관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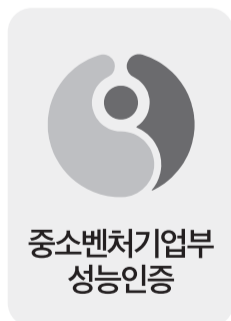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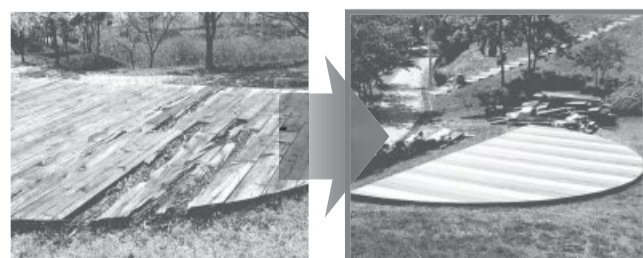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